

“사문 되어 정진한 것 청복” 입적 전 보험금 교계 기탁

30대 비구니 여범스님 ‘아름다운 회향’

한 젊은 비구니 스님이 개인명의 보험금 전액을 불교계에 보시하고 입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수원 봉녕사에 주석하던 여범(如凡)스님이 지난해 12월20일 병마와 싸우다 갑작스럽게 세연(世緣)을 마치는 과정에서 보험금과 예금 등 수천만 원을 불교계에 회향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봉녕사 승가대학장 묘엄스님의 손상좌인 여범스님은 원적에 들기 전 “부처님 은혜로 출가사문이 되어 정진한 것을 청복(淸福)으로 생각한다”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보험금이 불법(佛法)을 전하고 사부대중을 위하는 뜻 깊은 일에 사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유지를 남겼다. 여범스님은 발병 사실을 확인한지 1달 만에 입적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여범스님은 보험금의 수혜자를 문중의 한 스님에게 이전하면서 이같은 유지를 전했다. 입적 후 문중 스님은 보험금 전액을 봉녕사에 전했으며, 봉녕사는 여범스님의 뜻을 존중해 종단의 교육기관, 복지시설, 비구니 선원에 모두 보시했다.

보험금은 동국대(2000만원)와 중앙승가대(2000만원) 발전기금을 비롯 △연꽃마을(300만원) △승가원(300만원) △정도마을(100만원) △전국 비구니 선원 22곳(2300만원)에 각종 기금으로 전달됐다. 여범스님은 이와 별도로 생전에 해인총림 해인사의 한 비



종국성지 순례 당시 여범스님(오른쪽). 사진제공=서울 진관사 법해스님

22개 선원 동국대 등
교육·복지계 전해져
수행정신 실천 ‘귀감’

구니 선원에도 다리 난간을 보수하는 비용 1000만원을 내놓는 등 보시행을 계속해 왔다.

봉녕사 스님들은 “비록 짧은 생을 살고 가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여범스님의 원력과 자비행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대학원에서 함께 수학한 법해스님(서울 진관사 총무)은 “언제나 남을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마음이 컸던 여범스님의 모습이 생생하다”고 회고했다. 법해스님은 “투병 중에도 여범스님은 병상에

놓지 않고 가부좌를 하고 편안한 자세로 생과 사를 초탈했다”고 말했다.

여범스님의 대학 은사인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스님은 “재학 시절에도 남달리 열심히 공부했으며, 신심이 견고하고 생활이 건실했던 수행자였다”고 회고하면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여범스님의 보시행을 전해들은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여범스님이 아주 맑게 모든 것을 회향하고 원적에 들었다”면서 “무소유의 수행정신을 실천한 스님의 좋은 뜻이 교단 전체에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원력’을 실천하고 세연을 다한 여범스님은 1991년 8월 해인사에서 법전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96년 10월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한 후 수행 정진에 몰두했다. 선원에서 정진하던 여범스님은 교학 연찬과 계율 호지의 뜻을 세워 1997년 봉녕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중앙승가대 불교학과(2000년), 동국대 불교대학원(2002년), 봉녕사 금강울원(2007년)을 마쳤다. 이후 수원 봉녕사에서 교무와 회계소임을 보면서 대중을 외호했고, 지난해 11월 갑자기 병환에 들어, 한 달 만에 입적했다.

여범스님의 입적 당시 세수는 39세, 법납은 19세였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방문

일일이 손잡고 안아주며 정 나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사회 복지법인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을 찾아 원생들을 격려했다. 지난 8월25일 서울 안암동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을 방문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일일이 손을 잡아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총무원장 스님은 매달 정기적으로 불교계 복지시설을 방문해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인근 개운사 참배를 마치고 장애아동시설을 찾은 총무원장 스님은 승가원 이사장 태원스님과 장애아동시설 원장 동욱스님 등으로부터 운영현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1996년 중앙승가대학교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장애인복지 전문법인이다. 불교계 최대 장애인 복지시설인 승가원 자비복지타운을 비롯해 장애인 그룹홈, 지역사회 복지관 및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은 서울시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현재 73명의 1·2급 지적장애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실, 생활실, 강당, 자원봉사실, 재활상담실, 도서관 등을 갖췄다.

특히 이날 방문은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장애아동시설 어린이들의 두 번째 만남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4월14일 경기도 여주에 있는 결은도자연체험학교 도자기체험 교실에 참여한 승가원 장애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8월25일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을 둘러 본 후 학교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김가영 양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가영 양은 지난 4월 여주에 이어 두 번째 만난 스님 품에 안기며 반가움을 표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가영 양, 두 번째 만남에
품에 안기며 반가움 표해

아동시설 원생 20여명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바 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2살 김가영 양의 짝꿍이 되어 체험 활동을 도와주며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이 날도 총무원장 스님은 현관 앞

으로 마중을 나가 학교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을 기다렸다. 조금 뒤 스쿨버스가 도착했고 버스에서 내린 가영 양은 총무원장 스님을 발견하자 외락 품에 안기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스님은 하교한 20여 명의 원생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원생들의 생활공간을 둘러본 총무원장 스님은 종합과자세트를 선물하

며 건강하게 지내라는 격려로 아이들을 다시 한 번 다독였다. 시설을 나온 총무원장 스님은 서울유형문화재 89호인 보타사 마애불좌상을 참배한 뒤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장애아동시설 방문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스님, 개운사 주지 법해스님 등이 함께 했다.

장영성 기자 fuel@ibulgyo.com

케냐 초등학교 건립 캠페인 전개

불교신문-지구촌공생회, 1억원 모금 목표

1만원이면 벽돌100장 후원...12월31일까지

불교신문사(사장 천복스님)와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스님)가 9월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케냐 엔요노르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COLA(Cool Learning Africa)’ 공동캠페인을 전개한다.

현지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개하는 이번 공

동캠페인은 총 1억원 모금을 목표로 진행되며,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금은 엔요노르 초등학교 교실 6칸 신축 및 기존 교실 개·보수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캠페인 동참은 1만원부터 가능하다. 1만원이면 현지 학교건립을 위한 벽돌 100장을 후원할 수 있다.

엔요노르 초등학교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남동쪽으로 9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카지아도 주 사질로니 지역에 있으며 현재 79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학교 교실을 건축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현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3칸의 교실 역시 매우 낙후됐다. 뿐만 아니라 교실도 유지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위한 교실뿐이어서 고학년 학생들의 경우 이곳에

서 8km 이상 떨어진 다른 학교에 다니거나 사실상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은 “불교계 국제개발기구 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2007년부터 아프리카 유목민인 마사이들을 한 곳에 정착시키기 위해 핸드프롭, 시범 농장을 완공했고 이번에는 학교를 지어서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고자 한다”며 “피부색, 종교, 문화, 언어가 다르더라도 지구촌 곳곳에 미개발 지역을 찾아 자비와 실천을 실현하고자 사업지평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국제포교사 자격’ 고시

포교원 10월24일 시행

조계종 포교원(원장 해송스님)은 오는 10월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기 2554(2010)년도 국제포교사 자격고시를 시행한다.

한국불교를 세계에 널리 알릴 국제

포교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자격고시는 1차 서류전형에 이어 불교교리, 불교사, 불교상식, 불교문화, 한국불교 일반, 포교이해론, 일반상식 등에 대한 필기고사와 종단관, 의식집전 능력, 외국어 능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으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11월 중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조계종 소속 스님이나 등록 신도로서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포교의 원력을 지닌 사람이면 응시할 수 있다. 스님의 경우 승적증명서와 교구본사 주지 스님 추천서, 재가자의 경우 신도증 사본과 제직사찰 주지스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오는 27일부터 10월8일까지 접수받는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제2회 전국 청소년교리경시대회 공부 현장

11면

낙산사 ‘행복한 양양군 만들기’ 나섰다

15면



대한불교 조계종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상조회가

대한민국 장례문화개선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반 세기 동안 나라를 지켜온 마음으로 고객과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상조회!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과 함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올바른 장례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상조회에 가입하시면

부담스러운 장례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장례서비스와 용품 일체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복잡한 장례절차,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장례절차는 물론 화장장 예약까지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물가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없습니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장례 시 추가금액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상조회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하세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 고인을 위한 장례용품/상주용품 일체 제공
- 장례절차, 사망신고 등 행정처리 안내
- 고인 운구를 위한 리무진, 앰블런스 제공
- 전문 장례지도사 및 조문객 도우미 파견

향군가족만의 특별한 혜택

- 전국 지정 종합병원 건강검진 서비스
- 전국 협력 군도 및 숙박시설 할인혜택
- 웨딩관련 서비스 할인혜택
- 향군 정회원, 군인 및 국가유공자 특별할인
- * 상세내역 홈페이지(www.korvafamily.com) 회원약관 참조

080-888-5000
무료상담전화 상담시 다니시는 사찰명을 말씀해주세요

중요정보고시 1. 초도해환금급 및 환급기준: 회원의 제1조 제 규정에 의함 나. 환급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환급 다. 만기 3개월 후 해지 시 납입금액의 100% 환급 2. 사자 분향시 분향의 해경기준 (주) 향군가족 회원의원에 의함 3. 주요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가.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및 원산지+ 원사의 종류: 대마 100% (종국산) • 원단의 제조 방법 및 제조지점: 국내인동 나. 권의 제조방법 및 원산지: 매장 시: 오동나무 (종국산 3cm~4.5cm • 화장 시: 오동나무 (종국산 1.8cm~3cm 다.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거리: 차량의 종류 - 운구리무진: 링컨 캐딜락, 에쿠스 (2006년식 이상 - 장의버스: 현대, 기아 (2006년식 이상) • 추가비용: 상팔별 기본 무료제공 거리 외 차량거리 추가 시 - 10km 당 운구버스 16,000원 / 리무진 18,000원 ※차량 및 비용은 제로잔여 및 행사시 2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라. 도우미 추가 시: 1인당 8만원 (10시간 제공, 2009년 기준) 4. 향군가족 현황 (2010년 3월 10일 기준) 가. 상조관리자 199명 원 총 고객환급유역 154억 원 (공인회계사의 회계검토를 받았음. 효령회계법인) 나. 고객불입금의 35.8%는 별도의 계정으로 농협 외 4개의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그 외 자산도 감독기관의 관리감독하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